

한선 시흥소방서장, '새 정부 출범 초기' 화재 예방 컨설팅

기사입력시간 : 2022/07/15 [10:00:00]

정현희 기자



[FPN 정현희 기자] = 시흥소방서(서장 한선)는 관내 대형 공사장·물류센터를 방문해 화재 예방·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새정부 출범 초기'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다수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5개 핵심 전략과제 안전관리 대상 중 하나로 마련됐다. 소방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관계자의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내달 17일까지 진행된다.

5개 핵심 전략과제 안전관리 대상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 등 공동주택 ▲대형 공사장·물류창고 ▲노후 고시원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 ▲요양원, 산후조리원 등 복합건축물 ▲용접·용단이 빈번한 산업시설 등이다.

한선 서장은 공동주택 공사장을 찾아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상태와 화재감시자 적정 배치, 화재 위험장소 가연물 보관 등을 살폈다. 대형 물류창고에서는 소방·피난·방화 시설 유지관리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며 안전컨설팅에 나섰다.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공사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규정 준수를 강조했다.



한선 서장은 "대형 공사장·물류창고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계자의 철저한 관리·예방활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